

MC : FM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정보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수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남구에 주요 현안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최용덕 시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MC : 남구 제1선거구가 도화동하고 주안동이죠?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네, 이 지역 모두 많이 정체가 되어 있어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의원 : 세월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나 했는데 여전히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죠. 이를테면 실업자수와 옛날에 콕콕 들어차 있던 마을의 집들이 반지하나 기타 그 한칸짜리 방들이 다 비워있고 점포는 개점휴업상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죠.

MC : 주안동과 도화동 이 일대를 활성화해보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주안역 북쪽에 있죠, 주안 5.6공단

의원 : 네, 네

MC : 헌데 산업화를 선도하는 국가산업단지였는데 요즘은 상황이 어떤가요?

의원 : 지금도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찾아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아직도 빈 공장들이 문 닫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쪽에 한 삼사십개 이상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MC : 문을 닫았다는 말씀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영업을 못한다 얘긴가요?

의원 : 글썄 폐업을 하거나 이전 다른 탈인천 탈산업 산단이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유리한 쪽에 찾아 갔거나 폐업하는 이런 상황이죠.

MC : 그렇군요. 전수조사를 하시지는 못 했을 것 같은데 대충 뭐 몇 퍼센트 정도나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십니까?

의원 : 그 가동율 94%, 그러니까 약 6%정도가 비워있는데 이게 차고 넘쳐야할 상황에 비워 있는게 곧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MC : 그렇게 봐야겠다는 얘기구요. 그래서 주안5,6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인천산업단지로 인수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의원 : 인천산업단지는 그 산업 고도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열악한 여건을 깨끗하고 신, 새로운 개념의 아파트형식의 공단을 만들어주고 세제혜택이라든가 혜택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가 보시면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래식으로 놔두고 어느 사람이 창업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 좋은 여건으로 가지 이런 곳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라는 장점이 있다면 모를까 장점이 없다면 인천시 산업단지로 인수를 해서 인천시민들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도 인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MC : 국가산업단지라면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의원 : 물론 그렇습니다.

MC : 재정투입이라든지

의원 : 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MC : 근데 이걸 왜 나라에서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의원 : 한다고 하겠죠. 그냥 방치라고 하다가 보다는 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올 때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인천시를 상대로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인천에서 사업을 해서 물류라든지 기타 제반여건이 좋다면 좋은 곳으로 와야 하는데 그런 좋은 장점이 없기 때문에 비워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MC : 의원님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것을 차라리 인천시에서 인수를

해서 인천산업단지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원 : 물론입니다. 회기때마다 소리쳐봤는데 메아리가 쳐 오질 않네요.

MC :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인천산업단지로 인수가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뭐 좀 생각해 놓으신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 : 당연히 그 부분에 관해선 국가에서 관리하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한 규모의 재정이 시로 투입되겠죠. 이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MC : 네, 국가...

의원 : 세수가 곧 인천으로, 국가로 들어가던 것이 인천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MC : 세금 자체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관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알겠습니다. 그 주안역 근처에 뭐 십 몇 년간 방치되어온 건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 :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잘 알죠.

MC : 네, 그 어디 있는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의원 : 주안 5,6공단을 가기 위해서 주안북부역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보면은 역사와 연결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CGV건물이라고. 이 건물이 뭐 십수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거죠.

MC : 왜, 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 : 그 이제 지형,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건물을 건축했는데 여러 가지 관리부재 기타 경제적 상황 등을, 골이 깊어야 물이 많이 나오고, 호랑이가 있는 법인데 여기는 그런 상권이 이뤄지지 못해서 폐공간으로 여태 남아있어요.

MC : 네, 네, 네,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으셨죠?

의원 : 예, 그랬습니다. 이 건물은 불가피 시에서 사들여서 공단근로자들 복지를 위해 서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어~~~~ 슬럼프도 아니고 지금은 뭐 폐허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가파스로 국제결혼, 동남아쪽에서 색시를 데려다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공단근로자로서 얼마나 이 시대에 기여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분들을 위해서 결혼식도 올려주고 복지시설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자 여러차례 얘기 했는데도 답변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MC : 시에서 매입할만한 여력이 없다. 이런 대답을 듣고 계시는 군요.

의원 : 예, 예

MC : 자 주안 얘기를 먼저 나눴는데 이제 도화동입니다.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말이죠. 다 송도를 이전을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직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요?

의원 : 아 그럼요. 잔류학부가 있고 약 4천5백명 정도의 학생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MC : 아직까지도. 이 학생들도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 과 인가요? 어떻습니까?

의원 :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생수를 줄여서 이쪽 캠퍼스에선 받지 않고 저쪽 본교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죠.

MC :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지역상권이 붕괴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2016년 이후라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군요?

의원 : 그럼요. 당연히 폐허죠. 폐허.

MC : 그럼 여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 : 그래서 지금 인천시는 기 계획된 바대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약 천억원 이상을 들여서 송도캠퍼스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한 다음에는 여기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때가 잘 나가던 십수년전, 사오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알토랑 같은 땅을 팔아서 쓰는 때가 아닙니까? 이런 때 알토랑 같은 땅을 팔아서 1년에 200억이 넘는 세가 들어오는 이런 터미널부지나 백화점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런 곳으로 지원해서 하필이면 이런 때 학교 학생들을 이전하고 공사를 해서 되느냐? 이것을 주장해도 아마 시정부 책임자는 아랑곳 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MC : 제물포캠퍼스를 당분간 유지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의원 : 예, 당연하죠. 지금이 어느 땐데 이전을 해야 되나요?

MC : 증축해서 뭐 이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상황을 보가면서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은 적절하게 듣지 못하셨구요.

의원 : 예, 예, 뭐 대답이 없죠.

MC :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이 힘을 내셔야 되겠네요. 목소리 자체가 잠겨있습니다. 남구 어려운 점만 말씀하셨는데 힘을 좀 더 내시고 남구 이지역, 주안과 도화동 주민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 아 예,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MC :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남구 제1선구가 지역구인 최용덕 시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